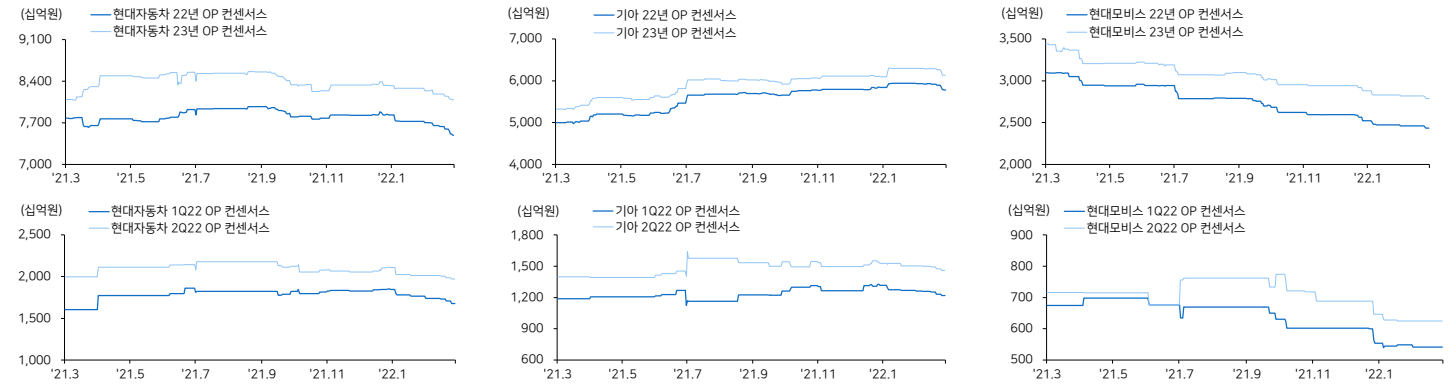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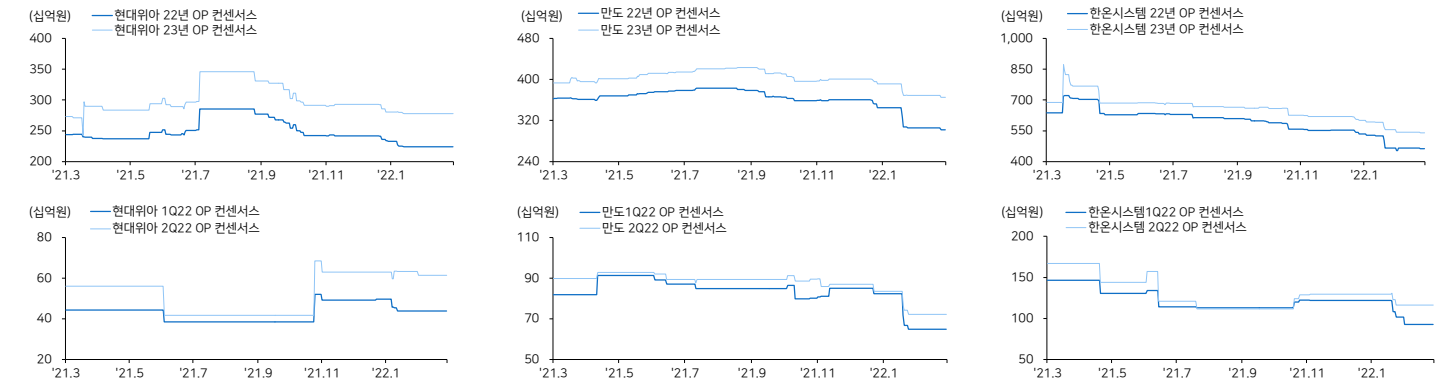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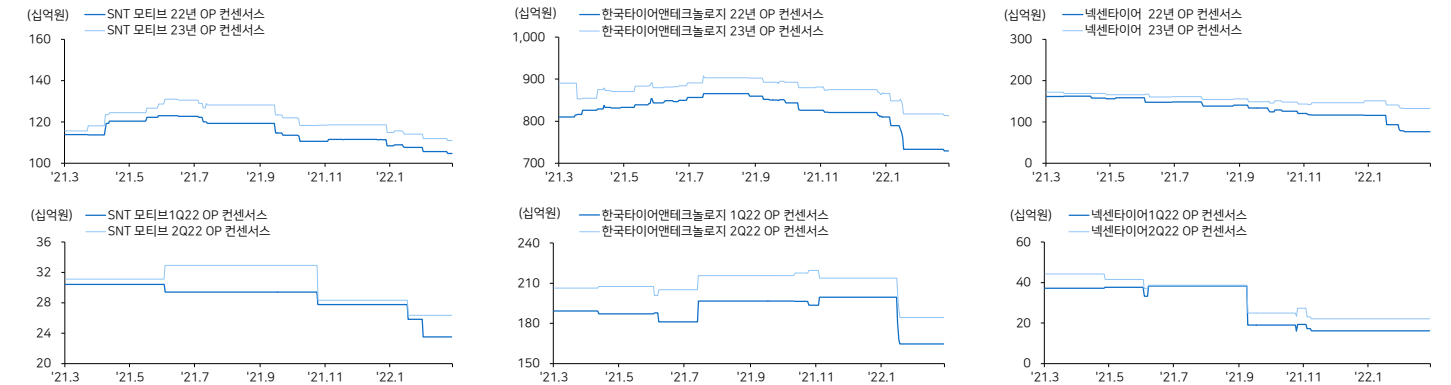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아이오닉 5' 성장세 탄력...글로벌 월간 판매 1만대 돌파 (에벌트경제)

아이오닉 5가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대표 주자로 자리 잡으면서 월간 판매량 1만대를 돌파함. 인도네시아 공강 준공으로 해외 현지 생산이 시작되는 만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글로벌 누적 판매 1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됨.
<https://bit.ly/3luPTN5>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 논의에 현대차그룹 긴장, 왜?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직무실을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핵금지구역 재조정이 불가피, 향후 현대차 사업계획 변수가 지적됨. 현대차는 상용화 시점이 먼 미래이므로 변동사항은 없다는 입장.
<https://bit.ly/3XCx1yp>

Chinese regulators express concern over rising EV battery material prices (CNEV Post)

중국 규제당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 NEV용 배터리 공급망 가격 안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함. 올해 NEV 보조금 축소에 따른 가격 인상에 더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져 평균 2만 위안 상승함.
<https://bit.ly/3CXdx69r>

Ford says European production hit by chip shortage, Ukraine conflict (Reuters)

포드는 독일의 2개 공장을 반도체 부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동 중단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포드 차량을 생산하는 폴란드 폭스바겐 공장 역시 부품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생산이 중단됨. 포드와 폭스바겐은 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중.
<https://reut.rs/3qnQnhk>

강판 후판 등 철강가격 줄줄이 인상, 자동차·조선·건설업 원가부담 커져 (중소기업신문)

제철을 원료로 철강 등 철강제품 생산에 쓰이는 원자재 가격이 연일 상승하는 중. 원가 부담이 가중된 국내 철강사들도 제품 가격을 연세적으로 올리고 있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수요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
<https://bit.ly/3tr9HNO>

포르세·페라리·롤스로이스...슈퍼카 '핵심' 달고 달린다 (머니투데이)

포르세·페라리 등은 전동화 모델을 이미 선보였으며,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벤틀리·마세라티·애스턴마틴 등은 최근 고속 전동화 계획을 공개 중. 프리미엄 배터리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는 국내 배터리 기업과 협업 가능성이 높음.
<https://bit.ly/3L287dP>

GM president: 'We never have one answer' for supply chain risks (Reuters)

마크 로이스 GM 사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험 심화에 불구, '22년 가이던스를 수정하지 않고 캐딜락 전기차 출시 계획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언급함. GM은 현재 전기차를 거의 생산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까지 40만대 생산을 계획 중.
<https://reut.rs/3N9be21>

VW targets \$7.1 billion for North America, could build ID.Buzz there (Reuters)

폭스바겐은 북미에 향후 5년간 최소 71억 달러를 투자하고, '30년까지 25개의 BEV 모델을 출시할 계획. ID.Buzz가 계획의 핵심이며, 현지 수요가 매우 강함. VW는 '30년 미국 신차 50%/유럽 신차 70%가 전기차가 될 것으로 예상.
<https://reut.rs/3uiPTeA>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